

## [ 발표 2 ]

## 프랑스의 인구와 사회복지정책 -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

윤지영(한림대 박사과정)

장은진(한림대 석사과정)

본 연구는 시기별, 분석적 태도의 견지에서 191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프랑스 출산장려정책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프랑스의 경우 평균 출산율이 0.8 이하로 세계 최저의 저출산 국가였다가, 지난해 출산율이 2.0을 넘어서면서 최근 성공적 출산장려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보다 앞서 오랫동안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온 프랑스의 선진적 저출산 대응정책의 특색을 20세기 전반에 걸쳐 시기별로 분석하고 평가해 보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압축적인 대책들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본다.

프랑스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시작됐다. 따라서 먼저, 20세기 초 이후 프랑스의 출산율 동향에서 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들을 검토하고, 이에 맞물려지는 각 시기별 인구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변화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1970년대의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주목하여, 다산을 목적으로 가족수당 등 출산을 장려하는 프랑스의 가족정책과, 사회주의적인 견지에서 여성의 일과 노동, 남성과의 평등권을 강조했던 스웨덴의 정책대응의 비교를 통해 프랑스출산장려정책들의 주요한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프랑스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평가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